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마태복음 ☉

공활히 여기는 자의 복

(마 5:1-7)

The Blessing of the Merciful

(Matt. 5:1-7)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공활을 운운 한다는 것은 적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공활히 여겨라, 그러면 그가 네 목을 짓밟을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활 없는 세상에서 공활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박노철 목사

그런데 예수님은 공활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공활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 “공활히 여기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사랑과 애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활히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It is said that to be merciful in this egocentric and competitive society, is to always have the enemy around. There is even an old saying, “Feel pity for someone, and he will trample on your neck.” It’s really true. We may not know that we live as an unmerciful person in an unmerciful world.

However, although Jesus tells us that we should be a merciful person, it is really difficult for us to do that.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word ‘mercy’ simply means “to feel pity for somebody and help him/her, but if we study the word ‘mercy’ in Hebrew and Greek, “to feel pity for somebody” refers to having love and affection for children by parents. Therefore, it must be difficult for us to have sympathy for someone.

‘공활’의 신약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공활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활입니다.

The theological meaning of ‘mercy’ is the cross of Jesus Christ. Because God had compassion on human beings, who had nothing but death owing to their sin, He let Jesus Christ die on the Cross. This is the real meaning of mercy.

이처럼 공활이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공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Though it is difficult for us to take pity on others, why should we have a mind to take pity on others?

1. 하나님이 공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공활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활히 여기시나니”(시 103:13).

공활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녀 된 우리도 공활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1. Because God is merciful

“As a father has compassion on his children, so the Lord has compassion on those who fear him”(Psalm 103:13). The compassion is God’s nature and attribute. Therefore, we must live a merciful life as God’s children.

Jesus had compassion on a widow who lost only one son in the town of Nain, a woman who was arrested at the crisis of death under adultery. He had mercy on a tax collector, Zacchaeus who skeptically viewed life. He had mercy on a woman who changed her husband five times in the town of Sychar, and also those who were isolated from people because of leprosy. He also gave His wonderful love, forgave them and healed them.

2. 우리가 하나님의 공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활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공활을 받았기 때문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활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Because we receive mercy

The clear reason why we should live a merciful life is that we have already been receiving and continually receive God’s mercy.

3. 공활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활히 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평화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 Because our merciful mind is the only way to find true peace

It is never easy to have compassion on people. However, if possible, we will enjoy sound freedom and peace.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공활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공활히 여길 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We know in our mind that we should forgive those who hurt u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for us to really forgive them. Moreover, Jesus tells us that we should have compassion on people. Because, when we really forgive someone and feel sympathy for them, the true meaning of peace will be known in our hear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공활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공활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공활한 마음을 가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People mocked Jesus Christ on the cross. But He had compassion on them and prayed to God. “Father, forgive them. Now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This word is Jesus’ heart to have real compassion and mercy on people.

By having compassion and mercy on people suffering difficulty, people isolated, immoral people who hurt us, and those who have not yet to believe in Jesus Christ,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His people to please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은사발견 세미나

2강: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열린 '은사발견 세미나'는 박노철 목사가 강사로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은사발견 세미나 2강이 열린다.

내년도 섬김위원 봉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번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본인의 은사에 합당한 봉사신청을 할 수 있기 바란다.



2011 사명자 대회 29일째 진행 중

매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 열열이 기도(다니엘 기도)

지난 10월 9일(주) 시작된 2011 사명자 대회가 온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24시간 연속 기도는 많은 자들이 책임 있게 잘 감당하므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11

월 4일(금) 오후 7시 현재 1500명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였으며 성경은 7독 중에 있다. 찬양예배 시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매주 이어졌다.

2012년 섬김위원 봉사지원신청서

11월13일까지(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2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 주보 삽지로 제공된 봉사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13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봉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존 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

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지난 2강에 걸쳐 박노철 목사가 강사로 선 은사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재발견하여 서울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2012학년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11월10일(목) 오전 8시40분~오후 6시05분 501호

2012학년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당일인 11월10일(목)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05분까지 501호에서 열린다. 수험시간에 맞추어 교역자의 인도로 찬양, 말씀, 간증 및 기도회로 진행되며 공동기도 제목 및 과목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이종진 지도목사의 인도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매주일 12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604호에서 갖고 있다.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영어회화 및 성경공부반 개강

우리 교회 스티븐 말틴노리치 목사(영어예배부 지도)가 가르치는 영어회화 및 성경공부반이 초급반은 11월 8일(화) 오전 10:30-12:00에, 중급반은 10일(목) 같은 시간에 각각 개강한다.

초급반은 기초회화, 성경읽기, 성경토론 등을 하며, 교재는 ESL영어회화와 영어성경이다. 중급반은 중급회화, 성경읽기, 성경토론 등을 하며, 교재는 ESL영어회화, 전도교재, 뉴스 기사, 영어성경이다. 등록비는 1만원이다.

서울음악 교실 오늘 개강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준비과정인 제8기 서울음악교실(지도: 박정선 장로)이 오늘 오후 1시30분 601호실에서 개강한다.

배경애 전도사 부임



우리 교회 전도사역을 담당할 준전임 교역자로 배경애 전도사가 지난 주일 부임하였다.

배 전도사는 1959년생으로서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서울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였다.

서울교회 총대명단

11월 8일(화)우리 교회에 있을 강남노회 정기노회 총대는 다음과 같다.

- 목사총대: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김인성 임규현
- 장로총대: 오정수 김광신 노문환 김대호 김영준 임훈규 홍성주 이복규 박정선 신용식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7]

(문 24) "아브라함 때에도 팔레스타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답) : 창20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21장에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창21:31)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26:1에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21과 26장 사이에는 60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창25:26) 따라서 26:1의 아비멜렉은 그전에 있던 아비멜렉의 아들이나 손자였을 것입니다.

고로 주전 2050년 이전 즉 아브라함의 때에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영백과사전(14판)에서도 블레셋에 대한 창21:32,34, 출13:17, 15:14, 23:31은 시대착오적 발상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랍세스 3세가 주전 1,190년 경 나일강 전투에서 '바닷사람들'을 이겼다는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그들 이름을 p-r-s-t 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용감한 바로에 의해 격퇴되었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남쪽 해안 지방으로 물러갔고 군사 식민지로 거기서 영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사건에서 유추해 낸 결론은 애굽의 기록에 있는 블레셋 사람에 대한 최초의 문헌에 의하면 주전 1,190년 이전에는 그레데 섬에서 팔레스타인에 이민 온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고고학적 연구와 하나님의 진이 앞에서 블레셋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주전21세기경부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은 모세 때에(주전 1440년 경) 가까운 길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출13:17) 이 기록은 랍세스 3세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중요 5개 도시가 발굴되고 희소스 시대 그리고 그 이전까지 한결같이 이들이 점령되어 있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쪽 해안은 무역을 했고 그레데 사람과 같은 영주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팔레스타인은 캅도립, 체렛타이스, 팔레타이스 같은 여러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주전12세기 초 애굽에 대항한 전쟁이 있기까지 그레데 사람들의 이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5경에 나타난 블레셋 사람의 얘기가 비역사적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도 자료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역사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우즈 계속)



홍승전 집사(16교구)

초저녁 잠이 많은 저로서는 저녁 12시 아니 새벽 0시에 기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 그리고 주님을 안 이후로도 저녁 12시라는 시간은 세상 만물이 잠을 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12시에 기도의 명을 받은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새 날이 시작되는 가장 고귀하고 경건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는 이 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call)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수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속삭임을 확인하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call)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미천하고 보잘것 없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팔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도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대회를 통해 우리에게 5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사명자대회는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로서의 대회가 아니라 혈우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뜨겁고 감격스러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명자의 기도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김진환 집사(제1스데반회장)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20년전 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서울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20년이 지나 주위를 돌아보니 사발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이종운 원로목사님도, 영적인 굶주림에 지친 우리를 따스하게 위로해 주시던 몇몇 장로님과 권사님도 지금은 우리의 곁을 떠나 그 모습을 찾을 길이 없음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교회가 이 시대 민족의 구원선으로, 세상의 나침반으로 그리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선 이웃의 등대로 굳건하게 이곳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울러 제2대 목사로 세우신 박노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약속하셨고 밝은 미래를 향해 독수리 날개짓 하는 서울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으니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분연히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사명감을 갖고 두 손 모아 열열히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시명자 대회

탁 오르는 기도의 불꽃

이강인 집사 (사명자대회 진행분과장)

2011 사명자대회가 29일째 힘차게 이어지고 있다. 11월 4일 현재 릴레이 기도는 연 1500명, 성경은 현재 7독 중에 있다.



종직자들은 특별히 심야와 새벽시간을 담당하여 기도의 불을 밝히며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고, 개인별 기도 역시 많은 이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

1991년 11월 27일 서울교회가 설립 될 당시, 성도들은 50일 동안 기도의 무릎을 꿇은 후어야 설립 예배를 드렸고, 이후 해마다 50일 동안 사명자대회를 하면서 교회 설립의 뜻을 되새기며 기도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지난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지난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기에 또한 서울교회의 오늘이 있지 아니한가!

특히 이번 사명자대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서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때 찬양예배 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유초등부는 '우리들은 다음 세대 믿음의 리더', 중고등부는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중고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고등부', 대청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자, 함께 승리하는 대학 청년부'라고 구호를 외치며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어 서울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다짐하고, 박노철 목사님은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였다.

기도는 사명자의 특권이며 축복이다. 이후도 남은 날 릴레이 기도와 아침 저녁 각각 10시에 하는 열열히 기도 등 뜨거운 기도로 교회와 민족을 품는 서울교회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지난주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천국시민양성-성경암송대회 수상

말씀이 풍성한 서울교회

고윤상 집사

회사 근무중에 소요리 문답반 김집사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10월에 성경암송대회가 있으니 나가보는 것이 어떠냐고? 나이 50에 암송에 자신은 하나도 없었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기왕 하는 거 영어로 하기로 했는데 범위가 로마서 11~16장 까지라 자신이 없어 1장(12장)만 하기로 하였다. 말씀을 외우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주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전철에서 열심히 외웠다. 점점 말씀을 외울수록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가 있고 자신이 붙어 2장(13-14장)을 추가 하였다. 매주마다 김집사님이 체크해 주셔서 늦게 시작했지만 속도가 붙었고 대회나갈 즈음에는 3장을 거의 외울수 있게 되었다. 출퇴근 시간 전철안에서, 회사근처나 양재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때의 기쁨



이런 기대 이상으로 황홀한 것이었다. 물론 때로는 돌아서면 잊어버려 실망도 되고 힘든점도 있었지만 말씀이 주는 그 기쁨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영어성경암송대회에서 나는 유일한 성인이었고 나의 경쟁상대(?)는 막내딸하고 같은 중학생 포래 아이들 이었다. 모두 학업에 바쁜중에도 준비하여 암송하는 아이들이 기특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실까 생각하니 다음 대회에 우리막내에게도 꼭 권하고 싶어졌다. 이번이 처음 참가하는 대회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감사했는데 뜻밖에 상이 주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도해주신 김진달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경암송대회는 더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말씀에 풍부한 서울교회가 되는 꿈(vision)을 꾸어본다.

경매와 찬양곡집 출간 "샘솟는 기쁨"



서울교회 가족 모두가 즐겨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찬양곡집 "샘솟는 기쁨" 이 출간되었다.

찬양위원회(위원장 박정선 장로)에서는 지난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우리교회 대학, 청년부로부터 부목사, 장로,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 별로 고르게 선호하는 찬양곡을 추천받고, 특히 박노철 목사님과 찬양을 인도하시는 최지호 목사님의 추천곡을 총 수합한 후 다시금 엄선하여 총 234곡이 수록된 찬양곡집을 출간하였다.

이번에 만들어진 찬양곡들은 한 곡 한 곡이 주옥같은 은혜 넘치는 찬양곡들로서 다락방모임, 금요기도회, 새가족부, 전도회별 모임, 대학, 청년부 및 가정 예배 등 각종 집회 때 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가격은 8,000원이며 서적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천국시민양성-성경암송대회 수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진상윤 (유치부 사랑2반)

먼저 어린 상윤이에게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윤이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유치부 선생님들께서 매주 한 절씩 외우게 도와주셔서 비록 많은 구절은 아니었지만 몇 구절씩 암송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치부에서 마지막 해이고 이제 일곱 살이라 한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보기로 상윤이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암송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어른인 저도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인데 아직까지 많은 단어를 알지 못하는 상윤이에게는 정확히 읽고 발음하는 것조차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많이 혼동하였고 또 비슷한 구절이 반복될 때마다 그 차이를 잘 구분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절 한절 꾸준히 암송을 해 나갔고, 또 매주 일 정해진 성경암송을 하고서 지도 선생님께 간식을

받으면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암송대회 한 두주 전부터는 매일 일정한 분량을 함께 읽었는데, 매번 힘들어하면서도 "암송하기 힘든데 그만할까?"라고 넋지시 물으면 "아니예요, 계속할래요" 라고 대답하고 그 이유를 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저와 아이 아빠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윤이의 암송을 도와주면서 저의 믿음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단어 뜻조차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열심히 읽고 외우는 아이도 있는데 평소애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성경 암송도 시도도 해보지 않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예비 일꾼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늘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유치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윤이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앞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일(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ACTS)에서 특강을 한다. 11일(금) Save N.K 공동회장 및 이사회를 소집한다.
- 득녀 : 9교구 한대성 성도 구진영 성도
- 이사 : 정승용 최정희 가정 경기도 군포시 수리동 설악주공 8단지 852-401
- 주간식당봉사 : 엘리야선교회(11.6) 모세선교회(11.13)
- 금주의 식사 : 감광욱 집사서영희 권사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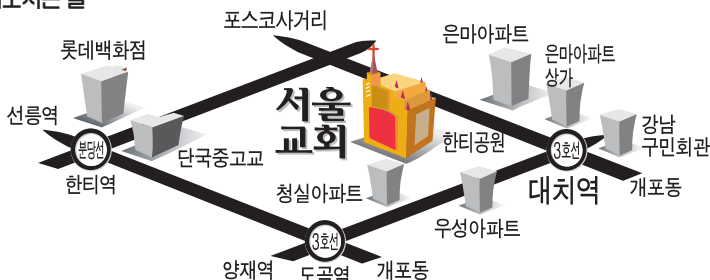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11/10일(목)에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능생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어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2. 2011 사명자 대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과 말씀에 참여함으로 우리교회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3.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나의 사역에 봉사함으로 전 교인 동력화라는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